

[2001 기도축제]

첫째 날 : 예수님의 기도

홍정길 목사 / 본문 : 행 12:1~17 / 페이지 수: 3

하용조 목사의 간암 투병 소식은 온누리 성도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안타깝게 합니다. 간암은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하 목사가 앓아온 병은 지금까지의 그의 삶이 만든 질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거대한 세력에 둘러싸여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도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한 놀라운 능력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권능의 보좌를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해도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주의 임재가 넘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모이는 곳에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의 신음에 마저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2천 년 전 예루살렘에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된 탓에 베드로를 처단을 못한 채 계속 며칠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기도할 때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쉽게 응답 해주시는 않는 것에 대해 더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 쉽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물러는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물려서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

어갔다 나왔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의 없는 이 선지자에 대해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집종이 '밀저야 본전'이란 마음을 갖고 엘리사의 말에 따라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실제로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여섯 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에 문둥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중단하면 아니 한 것만 못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도 일곱 채날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가 6일째까지 미동도 하지 않더니 주의 약속이 끝나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을 의지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 기도하라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확신 때문에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살려 줬는데 '환상인가'하고 놀랍니다.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왔지만, 귀신인 줄 알고 놀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 확신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실재를 보면서도 베드로의 천사인 줄 착각하며 기대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일으키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확신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가 친히 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33장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올바르게 변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때에, 우뚝 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도성들이 다시 수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들겠다.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내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7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되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과 더 가까운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께서 하 목사님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주께서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중 위에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절히 모여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해도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만왕의 왕 대주재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앞에 영광의 보좌를 펼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젊을 때부터 많은 질병을 앓았지만 그때마다 치료해주신 주님. 이제 어떤 치료를 주시기 위해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붙잡힌 베드로를 위하여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무릎 꿇어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마저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계속될 기도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과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오며 이 밤에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옥문을 여신 주님. 우리 하 목사님을 묶고 있는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외양간에서 풀려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번 났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주님 우리 하 목사님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증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주의 성도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타나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제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라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께서 상처를 입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하옵나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